

					G-B-18
제목	국문	여성 대장-직장암 발생과 비만의 관련성에 관한 환자-대조군 연구			
	영문	A case-contro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besity and female colorectal cancer			
저자 및 소속	국문	신애선, 윤하정, 박수경 <sup>1</sup> , 유근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up>1</sup>			
	영문	Aesun Shin, Hachung Yoon, Sue Kyung Park <sup>1</sup> , Keun-Young Yoo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Donggu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up>1</sup>			
분야	역학 [암]	발표자	신애선 [전공의]	발표형식	포스터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목적</p> <p>대장-직장암의 위험요인으로 비만이 제기되어왔다. 남성에는 있어서는 과체중이 대장-직장암의 발생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비만도의 위험도에 관한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동양 여성에서 비만도와 대장-직장암의 발생이 연관성이 있는지는 밝히기 위한 환자-대조군 연구로 수행되었다.</p> <p>2. 방법</p> <p>본 연구의 환자군은 1989년 1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일본 나고야시 소재 아이찌 암센터에 내원하였던 여성환자 중 병리-조직학적으로 확진된 대장암 환자로 동 병원에서 통상적으로 시행중인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과거력상 암이 없고 주요 변수인 체중과 신장이 누락되지 않은 3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조군은 동일한 기간동안 같은 병원에 내원하였던 여성 환자들 중에서 설문조사에 응하고 진단명이 암이 아니며 체중과 신장이 누락되지 않은 26,998명이였다. 비만도는 현재와 20대의 체중 및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를 이용하였다. 비만요인과 대장-직장암의 위험에 대한 통계분석은 unconditional linear logistic model 을 이용하여 기존에 알려진 여성 대장-직장암의 위험요인들을 통제하면서 체중 및 체질량지수 기저치에 대한 상대위험도를 산출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The SAS system 을 이용하였다.</p> <p>3. 결과</p> <p>신장은 대조군이 환자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으나(p=0.71). 현재의 체중이나 20대의 체중은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현재와 20대의 체질량지수는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연령을 보정한 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로지스틱 모델에서 현재의 체질량지수 및 현재와 20대의 체중은 증가에 따라 위험도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유의한 경향성도 보이지 않았다. 20대의 체질량지수는 제 2분위수에서 상대위험도 1.42로 기저치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 제 3분위수 및 제 4분위수의 상대위험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경향성도 보이지 않았다. 폐경상태에 따라 나누어 보았을 때에도 비만도 증가에 따른 위험도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p> <p>4. 고찰</p> <p>비만과 대장-직장암의 발생이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대장암과 관련성이 있는</p>					

것으로 알려진 고지방 식이 및 고열량 식이에서 기인한 비만이 직접, 간접적으로 대장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가정 하에서 제기되고 있다. 동물성 지방 섭취로 대변되는 고지방식이 대장암을 유발하는 기전은 생체내 담즙산의 성상 변형 및 담즙산과 대장점막간의 접촉으로 설명한다. 여성에서는 남성과 달리 여성호르몬이 담즙산의 성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의 보고에서 여성의 월경-출산 요인이 대장-직장암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이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 여성에서 비만도의 증가가 대장-직장암의 발생과 연관이 없었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자들은 비만도가 서구의 경우보다 낮은 수준이며, 비만도를 사분위수로 나누어 기저치에 대한 비만도 증가에 따른 대장-직장암 발생 위험도의 경향성을 본 것으로 대상자의 대부분이 정상체중에 속함을 고려하여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